

허위 및 과장 광고 관련 사례 안내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사례 안내

[사례1] 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로고 등을 도용하여 정부 사업 사칭하는 사례
지방에 사는 A씨는 ‘태양광 발전 무상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설치비 9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 후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는 문구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이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



- 정부사업 사칭
-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 농협제휴로 대출 유도



-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사례2] 농협제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

B씨는 태양광 설치 판매원을 통해 정부사업으로 태양광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업체는 농협을 통해 B씨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실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사업은 없었다.

가정용 태양광 초기설치비 없이 무상설치이벤트

신청대상자: 월 4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주택 선착순 50명

한번 설치로 30년동안 계속~~!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특징 및 설치후 기대효과

설치전요금	설치후요금	월 절감비용	년 절감비용
85,130원	2,200원	82,930원	995,160원
106,520원	9,360원	97,160원	1,165,920원
152,850원	19,380원	133,470원	1,601,640원
217,350원	35,840원	181,510원	2,178,120원

이제 전기를 망껏 쓰고 전기세는 기본요금만 내고 에어컨 팡팡틀자

순정에너지공단 인증제품 약속사업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허위사실(무상설치, 에너지공단 인증) 게재
- 폐지된 제도 게재

안 내 문

주택용 태양광 무상설치 이벤트

신청대상: 개인주택 및 건물 소유주
주택용 전기 요금 월 평균 3만원 이상 납부 주택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안내문 접수 후 담당자와 1차상담(전화), 자사 신재생에너지 상담원 방문 협의/계약에서 직접 상담, 시공가능 여부 판단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특징 및 설치 기대 효과

- 주택용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사용 후 남은 전기는 세득했다가 찾아 볼 수 있음.
- 전기요금 절약 예

84,130원	→	2,200원 / 106,520원	→	9,360원
152,850원	→	19,380원 / 217,350원	→	35,840원

* 정부지원금(2016년 기준) 260만원, 소한원에
해택 금액 받으세요

에너지원 고객지원부 담당함장

우리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시다.

-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